

신약 성경 OUTLINE

- 로마서(34) -

186.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롬 5:9-11

요절: 롬 5:9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의 피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피입니다. 이는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 동화 등에서 나오는 짐승이 인간으로 변하는 '변화의 능력'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인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같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이 세상의 누구도 죽은 후에 어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입니다. 후계자들이나 제자들이 기념하거나 생전의 가르침을 계승할 수는 있지만 죽은 이가 무슨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죽음과 더불어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행하신 일보다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이 더 많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봅시다. 주님께서 살아서 하신 일은 마귀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막1:34, 39).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한 일은 마귀를 멸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마귀는 자신을 괴롭히고 쫓아내던 자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멸망이 임해 버린 것입니다(요일3:8).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원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2:14-15,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 내려하심이라.](히2:14-15). 골로새서 2:14-15, 에베소서 2:15 참조. 이로써 우리는 주님이 살아서 하신 일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 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살아서 행한 모든 일은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의 모형이요, 예표일 뿐입니다.

주님은 살아서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비 병 환자에게 “아들아, 기운을 내고 네 죄들을 용서 받을지어다.”(마9:2) 말씀하셨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침상에 매인 채 내려오는 병자에게 “사람

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눅5:20)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여자를 향해, [...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눅7:48)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자신이 죄들을 사해 주는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몇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26, [... 이제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음이니라.](히9:26).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은 살아서 몇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를 제거해 버렸습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생은 죽으심이 목적이었습니다. 죽으심을 통해서 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 하신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1. 속죄 -죄를 용서하심. 죄를 제거하심(요일3:5, 벰전2:24a).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벰전2:24a).

2.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롬5: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롬5:8).

3.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림(골1:22). *구절을 모두 직접 적어 보시오.

4.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심(히2:14)

5. 죽음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심(히2:15)

6.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심(히9:15)

7.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롬5:10).

8.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심(롬14:9)

9.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고전15:20).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9).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과거형)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싶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구원을 살아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등의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의 말일 뿐입니다. 성경 신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 하나님이심을 듣고 마음에 받아 들였을 때입니다(요1:12).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 ▶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롬8 24a). -과거
- ▶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고전15:2). -과거
- ▶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엡2 8). - 과거
- ▶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벤전1:9). - 과거형

그런데 지금 로마서 5:9은 “구원을 받으리니”(미래형)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미 살펴 본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형벌인 둘째 지옥으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믿는 순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것이 전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날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육신의 정욕을 물리칩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자신이 받은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12-13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같이 내가 있을 때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라.](빌2:12-13). work out vs work in. 자신 안에 받은 구원이 없다면 밖으로 드러낼 구원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미 받은 구원을 가지고 열매로, 행실로, 삶으로 그 구원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간증이요, 승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으리라.”(미래)는 말씀은 죄의 존재(임재)로부터의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장차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히브리서 9:28,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리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히9:28).-미래형. 이미 구원받은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요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0:39,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히10:39).

구원의 3중적인 면에 대한 언급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 ▶ 과거 - 구원을 받았다 - 죄의 형벌 : 십자가의 죽으심(주의 초림)
- ▶ 현재 - 구원을 받는다 - 죄의 권능 : 성령의 내주하심
- ▶ 미래- 구원을 받을 것이다 - 죄의 임재 : 몸의 구속, 변화(주의 재림)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10).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써 죄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멸했습니다. 에베소서 2:14-16, [그분

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엡2:14-16).

주님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롬5:10)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하기 위한 ‘화평 헌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롬5:6). 주님의 죽으심만이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케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는 ‘화해’는 없습니다. 화해/화평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심.**

[이제는 그분께서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드리려고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和解)를 이루셨으니](골1:22).

▶ **성육신의 목적 - 대제사장이 되어 화해를 이루심.**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히2 17).

▶ **화해 헌물의 범위 - 온 세상의 죄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요일2 2). 제한 속죄설이나 구원 예정론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피의 권능과 효력은 특정인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 **화해 헌물 -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4 10).

이를 통해 원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화해를 이루었다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9절에 이어 10절에서도 구원을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장차 입할 몸의 구속과 변화를 말합니다. 혼의 구원을 받은 이들은 모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런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은 부활의 몸 즉 우리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일컫습니다.

▶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 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15:51-52).

▶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후3:18).

▶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런 몸과 같게 만드

시리라.](빌3 21).

▶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3:2).

성경은 이런 몸의 변화를 일컬어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소망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 몸이 변화 받는 소망을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11). *속죄-atonement. 성경에 총 71번 사용된 ‘속죄’란 말은 신약에서는 이 곳에 단 한번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속죄를 받았다는 말은 속죄 현물을 바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양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속죄를 받았습니다(과거형). 이것은 믿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속죄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가 사면 받은 것을 알 때 기쁨이 넘칩니다. 속죄는 세상에 태어나서 누리는 어떤 기쁨보다 큼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 자신이 이룬 일을 기뻐합니다. 자랑거리가 생기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야고보서 4:16,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약4 16).

반면 성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받은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 보십시오. 성도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속죄의 기쁨.**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순간은 무죄가 선포되는 때입니다. 사면령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죄의 속박을 벗고 자유를 얻는 것,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죄를 문제 삼지 않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롬5:11).

2.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은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을 모두 이깁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확신에 기인합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벧전1:6).

3. **예수님을 기뻐함.** 기쁨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느 8:10). 외적 소유, 자신의 자랑거리를 기쁨으로 삼는 이들은 그런 것이 없어지는 순간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느낍니다. 삶의 즐거움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뻐하는 이들은 항구적이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기쁨은 “영광이 가득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니](벧전1:8).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1).

4.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기쁨.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이나 모독을 모두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자가 된다는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 또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벧전4:13).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고후12:10).

•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주님의 죽으심을 보이라. 주의 만찬을 통해.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느니라.](고전11:26).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그 피를 기억하며 그분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 생활이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적 양식을 취하는 일입니다.

2. 주님의 죽으심을 짊어지라. -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4:10). 주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현재 믿는 성도들을 통해 재현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롬6:6).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갈2:20).

3. 죽음에 넘겨지라. -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살아 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4:11).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부활 신앙의 기초입니다.

4. 죽음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습이 되어](빌3:10).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 놓는 순교자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5.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딤후4:2).